

# 전쟁, 생의 주체로서 모가장(母家長)-되기\*

: 박화성의 『바람 닮』와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장미영\*\*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생존의 위협과 주체의 혼란
3. 생의 주체로서 선택 모가장(母家長)-되기
4. 결론: '전쟁미망인' 담론의 균열, 여성주체·모가장(母家長)-되기

## 〈국문초록〉

1950년대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에서 '전쟁미망인'은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전히 그녀의 삶을 통제하는 가부장제 영향아래 사회적 감시와 이중적 성규범으로 통제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때 '전쟁미망인' 개인의 욕망, 존엄성, 사회적 갈등, 심리적 불안, 생리적 욕구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박화성의 『바람 닮』의 운희와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의 『흑흑백백』의 혜숙, 『불신시대』의 진영, 『암흑시대』의 순영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쟁미망인'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관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타자화 된 '전쟁미망인'이 아닌, 욕망의 주체로서 자이를 발견하고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저항할 수

\* 이 연구에서 모가장(母家長)이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자를 통칭하고, 한 집안의 대표이며 책임자인 어머니를 이르는 말로 정의한다. (이선미 (2003),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가장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10집, 89쪽 참조

\*\*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있는 생명의 각성을 통해 ‘여성-되기’, ‘모가장-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인 여성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쟁미망인’ 서사와 차별화 된다. 박화성과 박경리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상이하지만 욕망의 주체로서 각성하고 있는 여성가장 서사를 통해 여성주체의 생명력은 물론 능동적인 모가장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박화성과 박경리는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문학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작품 속 개성적 여성인물을 통해 타자화 된 여성이 주체로의 회복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 둘째, 근대화 과정에서의 체험이 문학 활동으로 이어져 역사적 자장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신문연재를 비롯하여 대중성을 확보한 다수의 작품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박화성의 소설이 여성의식의 내밀함과 내면성을 탐색하는 작품 활동으로 이어지고, 박경리의 문학은 만물에 연민과 생명성을 부여하는 생명사상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박화성과 박경리는 자의식이 강한 여성인물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가치체계를 비판하거나 수동적인 여성인물이 각성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성장서사를 통해 여성이 처한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구체화하고 표면으로 드러낸다. 두 작가의 작품에 드러난 전근대적인 서사의 일면은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전체 작가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여성인물이 욕망의 주체로서 각성과 존재론적 성장과정에 대한 탐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핵심어 : 박화성, 바람뿜, 박경리, 생의 주체, 모가장(母家長), 성장서사, 여성성, 생명의 자각

## 1. 들어가는 말

1950년대 전후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에서 ‘전쟁미망인’은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전히 그녀의 삶을 통제하는 가부장제 영향아래 사회적 감시와 이중적 성규범으로 통제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때 ‘전쟁미망인’ 개인의 욕망, 존엄성, 사회적 갈등, 심리적 불안, 생리적 욕구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당스러운 존재로 낙인찍힌 혐오의 대상에 더 가까웠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흑흑백백』의 혜숙, 『불신시대』의 진영, 『암흑시대』의 순영과 박화성의 『바람뽀』의 윤희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전쟁미망인’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관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타자화 된 ‘전쟁미망인’이 아닌, 생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저항할 수 있는 생명의 각성을 통해 ‘여성-되기’, ‘모가장-되기’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인 여성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쟁미망인’ 서사와 차별화 된다.

당시 전쟁미망인을 포함한 ‘미망인들은 모자가정의 가장들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절대빈곤과 고독 그리고 사회적 몰이해 속에 방치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군유가족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느끼는 부채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사회는 미망인을 신화화된 성모로 호명함으로써 동정은 혐오로, 사회적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 
- 1)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과 여성가장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로는 김은하,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승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제56집,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37-62쪽;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 된 인식 : 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제4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31-149쪽; 허연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 1950년대 박경리 소설의 “근대”와 “여성” -전쟁미망인과 지식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제36집,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2011, 399-421쪽;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 전쟁미망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151-167쪽; 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93-124쪽;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가장 형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제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88-116쪽 등이 있다.

질책으로 변질되어 갔다<sup>2)</sup>는 김은하의 지적처럼 (전쟁)미망인에 대한 상반된 기대와 시선은 주체로서 능동적인 ‘-되기’의 선택을 가로막는 장벽과도 같았다.

박화성은 1903년 전남 목포시 죽도에서 태어나 11세 때 첫 소설 『유랑의 소녀』를 쓴 이래 1925년(21세)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문단』1월호에 단편 『추석전야』가 실려 문단에 정식 데뷔<sup>3)</sup>하였다. 이후 1988년 타계할 때 까지 『백화』, 『북극의 여명』 등 장편 17편, 중편 3편, 단편 62편, 연작 소설 2회, 여성인물열전 10편, 콩트 6편, 동화 1편, 희곡 1편 등 총 101편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기타 다수의 수필을 쓴 다작의 작가이다. 일제강점기 그의 소설은 동반자 작가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자와 민중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화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30년대 동반자작가’이자 ‘여성문학의 개척자’라는 범주에서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작품에 집중되어 박화성문학의 전모를 살피는데에 한계가 있다.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론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sup>4)</sup>. 또한 박경리는 1926년 12월 2일에 출생하여 1955년 8월 『현대문학』에 단편 『계산』이 김동리에 의해 초회 추천되었고, 이듬해 『흑흑백백』이 추천 완료되어 문단 활동을 시작한 이래 단편소설 48편과 『토지』1~20권을 비롯한 장편 소설 20편, 산문집 10권, 시집 5편을 발표<sup>5)</sup>하는 등 박화성 못지않은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박경리의 문학정신은 생명사상으로 수렴되고 『토지』

2)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반역-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278쪽.

3) 박화성의 연보는 『박화성문학전집』을 참고하였다.(서정자 편, 『박화성 문학전집』, 푸른사상사, 2004)

4) 변신원, 『박화성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1; 서정자, 『박화성의 해방 후 소설과 역사적식』, 『현대소설연구』 24, 현대소설학회, 2004; 김동윤, 『박화성의 1950년대 신문소설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7, 2011; 최창근, 『1950년대 국가주의의 담론과 청년문화』, 『어문논총』23, 2012, 201-225쪽.

5) 박경리의 연보는 김은경, 『박경리 문학연구』를 참고하였다.(김은경, 『박경리 문학연구』, 소명, 2014.)

로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화성과 박경리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났지만 출생 시기와 문학 활동 시기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작품 속 자의식이 강한 개성적 여성인물을 통해 타자화 된 여성이 주체로의 회복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모성이 강조되는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 받는 평면적인 인물이 아닌 욕망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인물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어머니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어머니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sup>6)</sup>를 인식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관습적인 어머니와는 다르다. 어머니의 모성을 통한 가치 부여가 아닌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각은 여성의 주체성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어 의미심장하다. 또한 교육을 받은 여성인물은 주체로서 자아를 각성하고 능동적인 여성 혹은 가장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둘째, 두 작가 모두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격동의 역사적 자장 안에서 문학 활동을 하며 시대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유사성을 꼽을 수 있다. 두 작가의 작품에 드러난 여성인물을 통한 혼란과 변화로 요동치던 시대를 가로지르는 여성의 삶에 대한 천착은 당대 남성 작가의 관점과는 차별화되는 서사로 확인할 수 있다.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역사에 대한 증언이자 시대적 관찰자로서 경험은 남성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이 특히 여성의 삶이 어떻게 요동치고 파괴되어 재구성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박화성, 박경리 작품 속에 전쟁으로 인한 일상의 파괴와 가부장제 사회에 살아남은 전쟁미망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

6) 섹슈얼리티(sexuality)란 ‘개인의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취향 등이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섹슈얼리티 또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신체적 쾌락과 욕망을 살아내는 문화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정의처럼 당시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물론 미망인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다.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0, 110-111쪽.)

열적이고 혼란스러운데,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쟁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신문연재를 비롯하여 대중성을 확보한 다수의 작품 활동을 하였다. 당시 신문연재소설은 남성 작가 위주로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재되는 소설에 따라 신문발행 부수가 달라질 만큼 신문사의 명운을 좌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950년~1960년까지 7편을 신문에 연재한 박화성과 1960년~70년까지 12편을 신문에 연재한 박경리는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작가라 할 수 있다. 두 작가의 대중성은 신문연재소설의 공통적인 특성인 관능성·감상성·노골성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대중 상업소설로 치부할 수 없는 당대 사회담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이후 전쟁미망인은 물론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여성인물의 모습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화성과 박경리 이외에도 전쟁미망인이 주인공인 서사를 쓴 작가는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박화성의 『바람뉘』와 박경리 초기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캐릭터와 서사구조의 유사성에 주목하였다. 이들 여성인물을 통해 각성하는 주체의 성장과 자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선택하는 모가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와 친정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여성인물 운희가 주인공인 박화성의 『바람뉘』와 운희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혜숙, 진영, 순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박경리의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전후 가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전쟁미망인’의 여성가장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적인 모가장(母家長)의 등장과 수용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박화성, 박경리의 작품 속 ‘전쟁미망인’ 모가장은 관습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모습이 아닌 생의 주체로서 각성을 통해 능동적인 모가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성신화와 여성가장 신화의 굴레를 벗고 주체적인 여성·모가장(母家長)으로서 각성과 변화 과정의 사회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생존의 위협과 주체의 혼란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6·25전쟁은 인적, 물적 손실<sup>7)</sup>은 물론 개인의 정신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1950년대 이후 문학의 소재, 제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 전반을 지배하는 원체험으로도 자리하고 있다. 1950년대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과하면서 자주적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방향을 정초하는 중대한 시기이기도 했다.

1950년대 전쟁미망인은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남성의 아내뿐만 아니라 넓게는 납북, 실종된 남성의 아내까지 포함한다. ‘미망인’이 남편이 사망한 남의 부인을 과부라는 호칭보다 예우하는 표현이라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죽었어야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들의 삶을 왜곡하는 출발점이 호칭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전쟁미망인에 포함되어 있는 드러난 혹은 드러나지 않은 전제에도 불구하고 박화성의 『바람뉘』와 박경리의 『흙속 백백』, 『불신시대』, 『암흑시대』와 같은 초기 단편 소설 속 전쟁미망인인 여성인물이 스스로를 욕망의 주체로서 각성하고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 전쟁미망인 담론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여성인물의 성장은 남성 중심적 텍스트에서 타자화된 여성, 혼란한 사회의 타락한 대상으로 그려진 것과는 달리 생동감 있는 주체로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자아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구체적

7) 유엔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피해 상황은 통계에 따르면 전쟁 피해자 총수는 약 131만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군인들의 경우에는 4만 3천 명이 사망하고 18만 3천 명이 부상당했으며 7만 명이 포로 또는 행방불명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납북되었으며 무려 36만 4천 명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다고 한다. 또한 적어도 20만 명의 남한 청년들이 북한의 이른바 의용군에 가입하였고, 5백만이 넘는 남한 인구가 집을 잃고 방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Baltimore: Penguin Books, 1970) 참조. 이재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사상』, 1990, 봄호, 185쪽 재인용.

으로 형상화 하고 있어 주체적인 여성가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박화성의 『바람뉘』는 잡지 『여원』에 1958년 4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연재되었다. 작품 안에서 ‘바람뉘’는 큰바람, 폭풍을 일컫는 말이다. ‘바람뉘’는 중의적 표현으로 전쟁과 같은 역사적 소용돌이인 큰바람이자 전쟁 후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 『바람뉘』에서 폭풍은 초점화자인 장운희의 인생에 불어 닥친 큰바람이기도 하고 운희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발단이기도 하다. 운희는 친정아버지의 기일에 맞춰 친정집에 큰아들 준식과 내려왔다 돌아갈 참이었다. 운희의 남편 김한수는 전쟁 중에 운희의 오빠와 함께 실종된 상태이다.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부재는 운희의 삶을 말 그대로 ‘미망인’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수의 생활 때문이지. 그 집에서 생활빌 안 언어 쓰면야 자유가 있지만”

“.....”

“그로니 한 집에서만이 아니구 들췌 댁에서두 대준다며?”

“네.”

운희는 힘없이 대답했다. 어머니께서는 두 집에서 반반씩 댄다고 여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쌀은 한 가마씩 큰댁에서, 나무는 작은댁에서 작년 가을에 연탄과 장작을 들여 주어서 지금까지 걱정이 없다.

(...)

“어머니! 정말 나두 자립하고 싶어요. 남에게 의뢰하지 않는 자립 자영하는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봤음 좋겠어요.”<sup>8)</sup>

진영은 머리를 부여안은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밥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8) 박화성, 『바람뉘』, 한국문학전집 6, 삼성출판사, 1993년 18판, 177-178쪽. 이후 작품 인용은 같은 책의 쪽수만 밝히어 적는다.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베통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 없이 비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sup>9)</sup>

(...) 하루살이처럼 위태롭고 서글픈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생활 기반마저 두달 전에 아주 잃어버리고 말았다. 실직을 한 것이다..<sup>10)</sup>

‘전쟁미망인’인 운희는 삼남매와 경제적 자립을 소원하지만 자신의 딸조차 딸을 귀여워하는 큰댁에 맡기고 시댁식구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계를 의탁하고 있다. 시댁식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사망이 아닌 실종 상태라는 점이다. 운희는 자신이 가장이 되어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다. 여학교만 나와 이르게 결혼한 운희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운희 어머니와 운희의 대화는 당시 미망인 가장이 겪고 있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혼란과 불균형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당시 여성가장으로서 ‘전쟁미망인’이 겪는 궁핍함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박경리의 『불신시대』의 진영 또한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병원의 무관심’ 때문에 아들이 죽었지만 폐병 든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다. 『흑흑백백』의 혜숙, 『암흑시대』의 순영도 ‘전쟁미망인’이 겪고 있는 절대적인 궁핍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운희는 딸아이를 큰집에 보내고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를 따르는 대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이와 달리 진영과 혜숙은 믿었던 주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일가친척 누구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극한의 상태이다. 박경리의 『영주와 고양이』 속 가장인 민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감옥보다 나을 것은 없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지만 생활을 영위해 나갈 능력(직업)이, 즉, 생존의 자유가 없다. 끝없는 궁핍에서 오는 공포 속에 나는 쫓겨다니며 있는 것이다 …(중

9) 박경리, 『불신시대』, 《현대문학》(1957, 8), 115쪽.

10) 박경리, 『흑흑백백』, 《현대문학》(1956, 8), 113쪽.

락)… 죽음을 생각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몸을 피는 일까지도—<sup>11)</sup>라고 되뇌인다. 이들에게 ‘뱀자리’, ‘하루살이’, ‘감옥’등으로 표현되는 현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빈곤, 부조리한 사회, 물신주의 팽배로 인해 절망한다. 이들에게 현실은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고 여성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박경리 초기 소설의 한 유형을 이루고 있는 전쟁미망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갈등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신화 풍조와 맞물려 구체화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과 전후의 혼란한 사회는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모든 것은 물질로 환산되는 불모의 상황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전후 현실은 특히 여성, 미망인에게 위협적인 상황 그 자체로 그려진다.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에서 보이는 작가와 여성가장 인물의 유사성은<sup>12)</sup> 표면적으로는 작가의 생생한 경험담의 문학적 형상화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전후 살아남은 자들의 비참한 삶의 반영이자 생존의 문제이고 인간의 생명이 물질적으로 교환되는 전후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 교환가치 대상으로서 인간 생명 유린은 주인공의 결벽적 성격이 부각되어 오염된 혹은 타락한 현실과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어 더욱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인공이 자기의 결벽성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현실은 오히려 주인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타락한 세상이 여전히 득세하는 전도된 결말은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11) 『흑흑백백』, 같은 쪽.

12) …실전을 경험하고 전쟁 이야기만 늘 쓰는 남성작가에게는 왜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가, 여자가 겪는 전쟁은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상황적으로도 다를 테지만 … 사회악과의 대결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소위 고집적 불성실은 아마도 가셔야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생활에 호기심 내지는 천착을 가하는 것은 이를테면 문학 소녀적 취미일 것입니다. 박경리, 『사소설의 이의』, 『Q씨에게』, 지식산업사, 119쪽.

여성, 아버지에게 버려진 딸, 전쟁 중에 남편과 이들을 잃은 전쟁미망인 등의 호칭은 가부장제 가족질서에서 여성 인물들에게 부여된 결핍의 요소를 드러내고 결핍된 주체로 호명되게 한다. 박경리 초기 소설의 인물들은 이러한 결핍을 강한 자의식으로 극복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타락한 현실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폭력적인 고통만 안겨줄 뿐이다.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고하는 인간으로서의 욕망은 살아있음의 표상이지만 통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전쟁미망인에게 성(性)은 섹슈얼리티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입하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변화를 ‘많은 여성들은 전쟁과 동원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들과 아버지를 잃었고 일부 여성들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남편과 이들과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나서야 했고, 남편과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했으며 또한 가족의 대표자가 되어 사회와 접촉해야<sup>13)</sup>했고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자의든 타의든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시련은 계층을 떠나 공통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경리의 초기 소설에서 보이는 자전적 서술은 단순히 전후 전쟁미망인이 겪어야했던 빈곤한 생활상<sup>14)</sup>을 그리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성 중심사회에서 남성 부재 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억압의 상황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은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된 최소한의 생존의 기반마저 상실한 여성이 사회적 존재로 편입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경리 소설에 등장하는 여

13) 이입하,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14호, 2003, 252쪽

14) 1950년대 여성의 노동 상황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인구수와 비율이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고,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한 점이 특징적이다.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은 그들의 삶을 빈곤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이입하, 위의 글, 253쪽-258쪽 참조)

성인물들이 근대교육을 받았다는 점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각성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으로 보인다.

『흑흑백백』의 혜숙, 『불신시대』의 진영, 『암흑시대』의 순영, 『영주와 고양이』의 민혜는 전쟁미망인이자 홀어머니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모가장(母家長)<sup>15)</sup>이다. 그러나 사회활동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 상황은 고난의 연속이다. 세상물정에 어두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물질주의의 팽배로 인한 인간소외의 일상화는 정체성의 혼란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협한다. 이들이 초반에 보이는 반응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과 한탄의 토로이지만 점차 가장으로서 책임과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타개책을 모색한다.

① 겨우 쥐꼬리만큼의 월급자리를 환도한 서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재작년 여름의 일이다. 판자벽에 썩은 함석지붕 밑의 방 한칸을 얻어 이력 저력 경이와 어머니의 세식구의 살림이 꾸러져 나갔다. 하루살이처럼 위태롭고 서글픈 생활이었다.<sup>16)</sup>

② 남편을 잃은 진영은 1·4 후퇴 때 세살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sup>17)</sup>

③ 사변 때 아버지를 잃은 영주(玲珠)는 작년 여름에 또 사내동생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민혜(玫惠) 자신이 어머니에게 외동딸이었던 것처럼 영주

15) ‘모가장’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의 전제와 연속선상의 이해를 부정할 수 없고, 새로운 여성 주체의 탄생을 가부장의 대체어로 오인 가능성이 큰 ‘모가장’을 선택한 이유는 가부장의 권위적이고 남성중심 가치체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여성이 주체화 되는 담론을 담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모가장’이라는 용어적 수정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16) 『흑흑백백』, 《현대문학》(1956, 8), 113쪽.

17) 『불신시대』, 《현대문학》(1957, 8), 115쪽.

역시 민혜에 있어서 외동딸이 되고 말았다. 무슨 숙명같은 이야기다.<sup>18)</sup>

④ 열살난 계집애, 여덟살 된 사내아이, 이 두 남매와 늙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 극히 불우한 처지의 여자이기도 했다.

순영이는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일체의 가산도 날려 버렸던 것이다. 전쟁 속에서 방황하던 목숨이 어느 위치에 머물러 섰을 때 순영이 앞에는 핍박한 생활이 드리다쳐 있었다.<sup>19)</sup>

박경리의 ‘전쟁미망인’이 주인공인 초기 단편소설 속 여성인물은 모두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쟁으로 생활 기반을 잃은 이들에게 현실에서 남아있는 건 생존을 위협하는 궁핍한 생활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여성가장들은 끊임없이 가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체로서 욕망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갈등<sup>20)</sup>한다. 이들에게 아들의 무고한 죽음은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부세계로 나올 수 있는 전기(轉機)가 된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전쟁미망인’은 전쟁으로 인해 생 의지를 상실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들에게 현실은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일 뿐이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불가항력

18) 「영주와 고양이」, 《현대문학》(1957, 10), 227쪽.

19) 「암흑시대」, 《현대문학》(1958, 6), 174쪽.

20) 이선미(2003)은 박경리 소설의 여성가장의 특징을 “박경리 소설의 여성가장들이 선택하는 저항적인 몸부림은 전쟁을 가족의 수난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 경험한 하나의 증거이다. 박경리 소설의 여성가장들은 한 가족의 어머니이기 전에 자존심이 있는 개인 인 것”(98-99쪽)으로 해석한다. 또한 자의식이 강한 개인으로서 여성가장이 주체적인 모가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의 자의식에 갇혀 있던 여성가장이 현실을 직시하고 항거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주체적인 ‘모가장’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 운명이 아닌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종교, 병원, 인간관계, 생명까지 돈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들 여성가장은 이 사회의 주체로서 인식의 전환과정을 보여준다.

박화성의 『바람 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큰댁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어느 날 운회가 없는 동안 아픈 동생을 돌보기 위해 큰댁을 뛰쳐나온 딸 미영이 ‘내가 바보야. 내가 거기 종두 아닌데 말이지. 이렇게두 자유가 없을까? ... 종만 같이 생각이 돼요... 나 원서동 간다구 하구선 그냥 뛰어 왔어요.’라는 말에 운회는 지금까지의 가족관계와 삼남매의 가장으로서 의식변화가 시작된다. 자신은 물론 자식의 안위와 미래마저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회피하고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운회는 자신보다 용기 있게 행동하는 딸 미영을 통해 그동안의 인인한 태도를 반성하고 가장으로서 주체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다진다.

### 3. 생의 주체<sup>21)</sup>로서 선택 모가장(母家長)-되기<sup>22)</sup>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21) 박경리의 ‘전쟁미망인’ 여성가장의 저항정신에 대한 논의는 앞서 밝힌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 연구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미(2003), 김양선(2011), 허연실(2011), 서재원(2011)).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에서 여성주체로서의 각성은 물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수동적으로 떠안게 된 여성가장이 아닌 부조리한 현실에 항거하는 생의 주체로서 모가장의 성장과 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2) ‘-되기’의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존재론적 개념으로써 A에서B가 되는 이행의 의미가 아니라 ‘devenir’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되기’의 개념은 이전에 무엇이었던 것에서 다른 무엇으로 변화 혹은 이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어떤 상태에서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들뢰즈, 질 & 가타리, 펠릭스,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을 참고하였다.(김재인, 『여성-생성, n개의 성 또는 생성의 정치학』, 『철학사상』 56호, 222쪽 참조.)

모성애를 강조하고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어머니의 역할은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 어디에서도 주체로서 자리할 수 없고, 사회적 주체로서 독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즉,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은 필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재하는 남편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모성애만 강조하는 여성가장 담론은 여성이 스스로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는 의식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다. 전쟁미망인에게 “한국의 모성애야말로 그들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모성애에 등을 대고 사는 한국의 미망인들이야말로 가시밭길을 웃으며 걷는 존재”<sup>23)</sup> 라는 사회적 압력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전후사회의 주체로서 여성주체는 특히 미망인의 경우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발언권과 인간으로서 권리는 소거된 채 의무와 역할만 부여받았다.

1950년대 시대상에 대해 김은경은 “1950년대는 재건의 물질적 과정에서 서구적 근대(자본주의)의 지향을 분명히 하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근대와 전통의 양 담론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유독 여성과 관련된 담론은 이러한 논쟁조차 되지 못한 채 ‘전통론’이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가운데 여성은 ‘전통’ 그자체로 재현되었고 열녀·효부가 전통의 이름으로 부활하였다.”<sup>24)</sup>고 지적한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구조는 근대화로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었지만 정신적 가치는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는 불균형 상태에 봉착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는 특히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한 가장이 부재한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생의 주체로서의 여성은 사라지고 모성신화 속 어머니만 남아 타자화 되었다.

『바람뉘』에서 윤희가 스스로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를 자각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면,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23) 정충량, 『미망인의 유혹 재가 딸린 아이』, 『여원』, 1959년 6월호, 171-172쪽

24)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제45집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10쪽

가장은 부조리한 현실에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의 자각을 통해 모가장으로 서 주체성을 각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윤희가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따르며 얻는 경제적 안정과 종속적 생활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는 윤희보다 나이는 한 살 많았지만 동급생으로 윤희를 좋아했던 황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 폭풍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황석과 윤희는 각자 자녀가 있는 홀아비, 홀어미이지만 지난 날 서로에게 가졌던 연애감정<sup>25)</sup>이 남아있는 상태다. 윤희와 황석이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황석이 “지금도 머리에 가득한 것은 ‘폭풍의 인연’이라는 신기한 감격입니다. 그런 걸 보면 재화(災禍)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화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는 수난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202-203쪽) 라는 말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작가의 주체의식이 녹아있는 발언이자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암시하는 복선이다.

윤희가 자신과 손주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황석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 내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머니란 자식을 위하여서 희생하기로만 되어 있는 존재들이며 또 그들은 그래서야만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 나도 이 애들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210쪽)는 마음은 전통적인 ‘모성’담론의 확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윤희의 태도는 박화성의 여성외식의 한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윤희의 인식 전환이 황석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평가<sup>26)</sup>의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윤희의 전통적인 모성의

25) ‘인간에겐 이러한 순간적인 행복도 있기에 시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더구나 그 행복이란 꿈에도 예측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려고 하는 것이며…’ (박화성, 위의 책, 213쪽)

26) 조미숙의 “여성작가의 여성상을 중심으로 여성 인물들의 자각과정에 주목하였거나 역사 속 타자였던 여성이 스스로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의 체반 아비투스과 대결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자였던 여성이 주체가 되어 과정에 남성이 매개체로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여성은 남성중심의 기존



역할과 가부장적 가정에 대한 의식의 균열은 황석을 만나기 이전부터 내재되어 갈등상태에 있었으며, 황석과의 만남을 통해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내적갈등과 각성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여성이 주체적 자각에 이르는 과정은 전통적 가치체계의 고수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각의 경합을 통해 비로소 주체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은 단일하지 않으며 기존의 가부장제 가치체계 속에서 끊임없는 회유와 저항 대결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운희에게 일어난 변화는 삼남매를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각성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욕망<sup>27)</sup>의 자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주체로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운희는 황석과의 재회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생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황석이 보낸 전보에 ‘흉흉한 바다에 한줄기 빛을 찾은 듯 가슴이 훈훈하게 더워 오며 캄캄한 앞길이 뽀얗게 트이는’

---

가치체계를 그대로 인식하여 여성 스스로도 사회의 아비투스( habitus)를 내면화 하고 그 결과 여성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당연시하게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하나가 모성 콤플렉스이다. 모성은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설정은 모든 문제를 여성에게 미루고 억압을 은폐하는 행위이다”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작품 속에서 여성 인물이 남성을 매개로 각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집중하게 된다면 남성인물을 통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여성 인물의 내적 갈등과 기존 가치체계에 저항하며 보이는 균열을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아비투스란 어느 한 시기의 혁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작은 균열과 갈등 속에서 새롭게 구성된다고 할 때 당시의 공공한 가치체계 속에서 여성이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적 주체의 각성이 갈등하고 경합하는 그 과정에 대한 가치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조미숙, 『지식인 여성상의 사적 고찰-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 2005, 164쪽)

- 27) ‘욕망은 무엇인가의 결핍이 아니다. 이것은 욕망의 대상의 결핍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은 욕망 속에서 그리워하는 주체이거나 또는 고정된 대상이 결핍된 욕망이다. 억압이 없다면 고정된 주체도 없다. 욕망과 욕망의 대상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욕망은 기계(機械)이며, 욕망의 대상은 욕망과 연결된 또 다른 기계이다.’ 이때 욕망이 하나의 기계라면 그 기계는 또 다른 기계와 연결될 때 작동되며 연결성을 욕망의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최명관 역, 『앙페르-오이디푸스(Anti-Oedipus)』, 민음사, 1994, 26쪽)

듯한 기분을 느끼며 타인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

몇 달 후 운희는 황석을 간호하기 위해 부산으로 간다. 운희가 황석을 돌보기 위해 부산으로 가기로 한 결심과 행동은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거부이자 시택에 의존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립의 선언이며 생의 주체로서 ‘나’에 대한 각성으로 볼 수 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돌진이 있을 뿐이었다. 운희는 팔꿈치로 좌충우돌하면서 자기의 길을 텃다.

흔히 이런 소리를 들었으나 아랑곳 없었다. 운희는 입술을 깨물면서 계속해서 뚫고 나갔다. 코에서 더운 김이 훌훌 뿜어졌다. 가슴도 뛰었다.

‘내 앞 길도, 내 생활의 개척도, 이렇게 내 힘으로 용감하게 뚫고 나가야겠다. (290쪽)

운희의 선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벗어나겠다는 독립의 선언이자, 낭만적 감상을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충실하겠다는 각성의 표현이다. 사실 운희는 모르고 있지만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그러므로 운희가 모르는 남편의 사망 사실은 운희와 황석의 관계가 불륜이 아니라는 작가의 윤리적 면죄부로 해석할 수 있다. 황석과 동행하며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바람뉘가 불어 닥치지만 나룻배를 타고 돌이 나누는 대화 중 운희가 “떠밀리거나 말거나 이왕 이 배에 오를 적에야 운명을 맡기구 나선건데 그렇게 떨어질까요 머?”라는 말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짙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가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

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이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썹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sup>28)</sup>

여성주체로서 각성한 윤희와 달리 『불신시대』의 진영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의 자각을 통해 외부세계의 부조리에 직접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로써 이전의 여성인물이 보인 개인의 내적갈등으로 인한 분열적 모습에서 작가의 시선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들 여성인물이 보여준 생명의 자각은 현실에 대한 외면과 회피로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자각이며 수동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견뎌내는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사회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주체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윤희가 관습적으로 강제하던 모성성을 거부하고 생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과정과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 속 인물들의 생의 자각을 통한 각성은 전후 남성 가장의 수동적 대리인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가장(母家長)으로서의 거듭나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전쟁미망인’ 담론의 균열, 여성주체, 모가장-되기

박화성의 『바람뉘』와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전쟁미망인’이라고 호명되는 여성 가장의 주체인식 과정과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이들 모가장이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존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은 외견상 유사해 보이지만 『바람뉘』의 윤희가 욕망의 주체로서 섹슈얼리티를 자각하면서 독립적 주

28) 『불신시대』, 140쪽.

체로 성장하고 있다면, 박경리 단편소설 속 여성인물은 사고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론적 각성과 생명의 자각을 통해 능동적으로 ‘모가장(母家長)-되기’ 선택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맞설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남성 가장이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바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박화성의 『바람뉘』와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속 모가장은 여성주체로서 혼란과 위협을 극복하고 가족과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능동적인 모가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화성과 박경리 두 작가는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가치체계를 비판하거나 수동적인 여성인물이 각성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성장서사를 통해 여성이 처한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구체화하고 표면으로 드러낸다. 두 작가의 작품에 드러난 전근대적인 서사의 일면은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동시에 전체 작가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여성인물이 욕망의 주체로서 각성과 존재론적 성장과정에 대한 탐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목하였다.

박화성이 여성의식의 내밀함과 내면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면, 박경리는 만물에 깃들어 있는 생명과 연민을 바탕으로 생명사상으로 수렴하는 대모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두 작가 모두 우리 문학사에서 작품의 양과 질의 풍부함을 고루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작가들이며 선구적인 여성의식은 시대를 초월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전의 자기로부터 벗어나 규정되지 않는,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주체성의 자각과 능동적인 모가장-되기를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을 통해 모성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모성신화, 여성가장신화 담론의 균열을 일으키며 성장하는 여성인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화성, 박경리 각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체성의 자각과 ‘모가장-되기의’ 변화와 성장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박경리, 『불신시대』, 《현대문학》(1957, 8).  
\_\_\_\_\_, 『영주와 고양이』, 《현대문학》(1957, 10).  
\_\_\_\_\_, 『암흑시대』, 《현대문학》(1958, 6).  
\_\_\_\_\_, 『흑흑백백』, 《현대문학》(1956, 8).  
\_\_\_\_\_, 『사소설의 이의』,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116-120.  
\_\_\_\_\_,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 19, 지식산업사, 1987.  
박화성, 『바람뉘』, 한국문학전집 6, 삼성출판사, 1993년 18판.

### 2. 단행본

- 김은경, 『박경리 문학연구』, 소명, 2014.  
들뢰즈, 질·가타리, 펠릭스,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11.  
변신원, 『박화성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11.  
서정자 편, 『박화성 문학전집』, 푸른사상사, 2004.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0.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최명관 역, 『앙띠-오이디푸스(Anti-Oedipus)』, 민음사, 1994.

### 3. 논문

- 김동윤, 『박화성의 1950년대 신문소설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87-113쪽.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 된 인식 : 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31-149쪽.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7-48쪽.  
김은하,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승고의 글쓰기』, 『아시아여성연구』

- 56(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37-62쪽.
- 김은하, 「전쟁미망인 재현의 모방과 번역-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277-301쪽.
- 김재인, 「여성-생성, n개의 성 또는 생성의 정치학」, 『철학사상』 5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215-237쪽.
-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 전쟁미망인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51-167쪽.
- 연효숙,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주의와 욕망론 그리고 여성적 주체」,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6, 한국여성철학회, 2006, 77-102쪽.
- 이선미, 「한국전쟁과 여성가장: ‘가족’과 ‘개인’ 사이의 긴장과 균열-1950년대 박경리와 강신재 소설의 여성가장 형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88-116쪽.
- 이윤정,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정체성 고찰」, 『문예운동』, 문예운동사, 2009, 34-49쪽.
-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 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14, 고려사학회, 2003, 251-278
- 이채진, 「한국전쟁의 숨은 뜻」, 계간 『사상』 4, 사회과학원, 1990, 183-201쪽.
- 정충량, 「미망인의 유혹 재가 딸린 아이」, 『여원』 1959년 6월호, 학원사, 1959.
-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12(1), 한국여성학회, 1996, 138-179쪽.
- 최창근, 「1950년대 국가주의 담론과 청년문화」, 『어문논총』 23,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2, 201-225쪽
- 허연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서사전략 ; 1950년대 박경리 소설의 "근대"와 "여성" -전쟁미망인과 지식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6집, 한국현대문학비평학회, 2011, 399-421쪽.

허윤, 『한국전쟁과 히스테리의 전유-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와 전후 가족질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93-124쪽.

## Abstract

### War, Being the Breadwinning Mother As the Subject of Life

Jang, Mi-young

The story of the breadwinning mother who lost her husband after the war is based on the dual influence of the patriarchy, in which the 'War widow' is responsible for the livelihood of the family left as a hither, and still rules her life. Pak kyongni's original short story, Hye-sook from "*The Black and White*", Jin-young from "*The Distrust Age*" and Soon-young from "*The Dark Age*", and Woon-hee from "*Wind Nu (Storm)*" are the typical stories of these women. However,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ir gender identity as women and their resistible lives, they are recovering their selves, throwing themselves out as batters and becoming the breadwinning mother.

Although Park Hwa-sung and Pak Kyong-ni have literary activities over a period of twenty years, the first is that women who are typified through individual female characters in the works are looking for recovery as a subject. Second, And that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historical hysteria. Third, it is common that they have produced popular works, including novels in the newspaper series.

We will examine the subject recognition process and the changes of women who are called 'war widow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livelihood of their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the absence of their husbands due to the war revealed by Park Hwa-sung's



"*Wind Nu (Storm)*" and Pak Kyongni's early short story novels. It seems like the appearance of struggling to survive in the world by losing a husband in war and taking care of the family's life seems to be similar in appearance, but unlike the cultivation of "*Wind Nu (Storm)*" as an individual becoming aware of femininity as an individual, A female character in a short novel leads to awareness of life beyond her ontological awareness.

These differences lead to the works of Park Hwa-sung 's novels exploring the intimacy and innerness of women' s consciousness, and Park's literary philosophy coincides with the literary nature of the literary world, which brings about compassion and vitality to everything.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spect of the pre-modern narrative revealed in the works of the two writers critically and at the same time to avoid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into the whole artist's consciousness.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earch for the awakening and the ontological growth process as the subject of desire by the female characters passing through the whole work.

Key words : Park Hwa-sung, Storm, Pak Kyongni, the Subject of life, Breadwinning mother, Growth-narrative, Femininity, Maternity, Awareness of life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